

## [ 전남 ]

# “설·대보름…세시풍속 체험하세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맞아 전남도 곳곳에서 다채로운 세시풍속 놀이와 문화행사가 열린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대보름인 21일까지 전남 도내 680여곳에서 당산제·달집 태우기·쥐불놀이 등 문화행사 다채

**자연사박물관·함평 달맞이공원 등 도내 680여곳**

특히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은 이 기간 동안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게 무료 입장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19일까지 목포시 광장과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는 귀성객과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통차 시음회, 우리춤 한마당 등이 마

련되고 청호시장 등 재래시장에서는 국단 ‘옛풀’ 주관으로 지신밟기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는 정월 대보름 맞이 전통 세시풍속 재현 행사가 열린다.

‘2008 함평 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달맞이공원 내 저수지 둑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쥐불놀이 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어 21일에는 여수시 거북선공원에서 여수문화원 주관으로 ‘2008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한마당 행사를 통해 여수시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2012 여수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전통 민속놀이를 재현 한다.

/채희종기자 chae@



입춘(立春)을 지나면서 농촌 들녘에 파릇파릇 돋아난 보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옛부터 농가에서는 입춘을 전후해 보리뿌리를 뽑아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 한가닥이면 흉년이 들 징조로 여겼다고 한다.

(강진군제공)



## 청결한 여수 가꾸기 시민 참여 활발

### 여수 ‘엑스포 4대 시민운동’

여수시가 매달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대체적으로 전개한다.

여수시는 지난 4월 ‘2012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내 전 지역에서 공직자와 유관기관, 분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펼쳤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구례 문체면 공무원들 독거노인 보살피기 ‘훈훈’

#### 7명과 자매결연도

구례 공무원들이 부양 의무자가 없는 무의탁 노인 돌보기에 발벗고 나섰다.

구례군 문체면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1일 생활협동원이 어려운 독거노인 7명과 자매 결연을 맺고 선물을 전달했다.

문체면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가정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본가 별로 안부 살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금춘 문체면장은 “독거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히 거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